

간호대학생의 조산원 분만 참여 경험

박재순¹ · 김혜진¹ · 염순교²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¹, 서일대학교 간호과²

Experienc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ed to Delivery Practice at Midwifery Clinic

Park, Chaisoon¹ · Kim, Hyejin¹ · Yeoum, Soongyo²

¹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²Department of Nursing, Seoi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attended delivery practices at midwifery clinic. **Methods:** This was a qualitative study using focus groups. Data were collected by group interviews with a total of 12 students who observed natural childbirth at midwifery clinic.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laizzi's method in which meaningful statements were extracted. **Results:** The meanings of experiences were identified five theme clusters from thirteen themes and thirty-one sub-themes. The five theme clusters were 'ultimate process of natural childbirth', 'allowed birth', 'role recognition of the midwife', 'positively changed perception', and 'barriers'.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observation of delivery at midwifery clinic was helpful for nursing students in terms of positive impression about natural childbirth with maternal and baby being centered. Nursing students expressed value and concern about delivery at midwifery clinic. Further in-depth study of natural childbirth in terms of husband and family perspective is required. For quality improvement of maternity nursing care, natural childbirth process needs to be included in nursing care at hospitals as well as students' clinical practicum.

Key Words: Nursing student, Midwifery, Delivery, Natural childbirth, Experience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생식 능력이 실현되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만이 아니라 소속된 사회 내에서의 문화 양식과 의미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문화적 사건으로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보살핌과 배려를 받았는지, 능동적인 주체로서 스스로 참여했는지 여부는 여성의 출산 경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1-6].

최근에 제안되고 있는 다양한 자연주의 출산은 마취, 진정 및 수술 등의 일상적인 의료적 처치와 개입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진통과 출산을 하게하는 방법으로서[7], 산부에게는 분만 경험 지각을 긍정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분만 후 통증을 감소시킨다. 출생하는 신생아에게는 비폭력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격적 시술을 제공하여 신생아의 통증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모아애착행위를 더욱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선행연구에서는 자연주의 출산방법의 하나인 르봐이에 분만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르봐이에 분만의 의미는 존중과 배려, 조용하고 거룩한

주요어: 간호대학생, 조산원, 분만, 자연출산, 경험.

Corresponding author: Yeoum, Soongyo

Department of Nursing, Seoil University, 90 Yongmasan-ro, Jungrang-gu, Seoul, 131-702, Korea.
Tel: +82-2-490-7580, Fax: +82-2-490-7225, E-mail: yeoumsg@seoil.ac.kr

Received: Jul 28, 2014 / **Revised:** May 6, 2015 / **Accepted:** Jun 9,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분위기를 확인하였고[9], 출산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조산원 분만을 경험한 산모가 병원 분만을 경험한 산모보다 출산 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10, 11]. 이는 출산하는 산모와 가족이 의료인이나 조산사를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하며[12]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자기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것과도 연관된다[9]. 그러므로 자연주의 출산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만을 중재하는 의료인의 자연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의 기초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대학교육 및 실습 과정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인 저출산율로 한국의 간호대학생은 병원실습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분만 사례가 부족하여, 관련 동영상이나 시뮬레이션으로 실습을 대체하기도 하며, 조산원을 새로운 실습장소로 발굴하기도 한다. 특히 자연주의 출산과 출산장소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면 간호대학생이 조산원 분만과정을 참관하는 경험은 자연주의 출산을 고려하는 산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만실 실습 이전의 간호대학생들에게 분만의 의미는 당연함, 행복감 및 성숙감과 같은 긍정적 요소와 함께 고통, 수치감, 혐오감, 부담감, 비현실감 및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13]. 분만에 대한 부정적 의미는 가족과 떨어져 임부 혼자 분만 통증과 공포를 견뎌야 하는 비지지적 상황을 관찰하게 될 때 더욱 영향 받을 수 있다[9].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분만 실습을 하게 될 때 분만 상황전반에 대한 관찰과 충분한 이해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편향적 인식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3년 한국의 자연분만율은 약 67%에 이르고 있어서 3명당 2명은 산모 스스로가 분만의 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출산방법을 선택하고 있다[14]. 더불어 출산의 주체인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억압되는 분만 현장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면서 출산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자신들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반영할 것을 주장한다[15]. 이러한 추세는 여러 병원에서도 분만개조 방법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특히 자연주의 출산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조산원의 경우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서구에서도 병원이 아닌 조산원이나 가정에서의 분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체계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산모들에게 반드시 출산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함을 공식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병력이 없고 임신 중 건강을 유지한 산모들에게는 병

원 밖에서의 출산이 허용된다[1]. 이와 같이 출산 방법의 선택권과 조산원 출산에 대한 관심이 최근 마스크 등을 통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은 물론 간호학 전공학생들도 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는 조산원 분만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나 부적절한 정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자연주의 출산이나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조산원 출산과 분만실 실습에 관한 간호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산모를 대상으로 한 출산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가 있으나[2], 학생대상으로는 병원분만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9, 13, 16-17] 조산원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관찰하는 등의 실습학생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산장소로서의 수요가 높은 곳은 분만간호 요구도가 그 수요에 비례해서 증가하며, 그에 적절한 간호중재방법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이 곧 출산문화를 선도하게 된다. 자연주의 출산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인의 긍정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해 볼 때, 우선 간호대학생들이 조산원 분만 참여를 어떻게 경험하고 수용하게 되는지를 학생들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주의 출산과정의 참여경험을 통해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진정한 자연 분만의 의미는 무엇이고 자연 분만 시 조산사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들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자연주의 출산을 기반으로 하는 조산원 분만실습을 통해 분만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간호대학생들은 간호과정을 적용한 통합적 간호중재 제공 능력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자연분만을 독려하고 제왕절개 분만을 감소시켜야 하는 출산 관련 문제 등을 포함해서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연주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조산원 분만 참여경험은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는 출산문화를 선도함과 더불어 지지적이면서도 정교한 분만간호를 계획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분만중재를 해야 하는 의료인의 준비과정에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산원 분만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Colaizzi의 방법에 따라 분석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2. 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서울소재 C간호대학 3학년 학생으로 모성간호학실습 기간 동안 조산원에서 분만 과정을 한번 이상 관찰한 경험이 있는 학생 12명이었다. 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해당 실습기간 중에 조산원에 분만사례가 있을 때 실습 참여의사를 밝히도록 하였다. 해당기간 실습에 참여한 남학생은 없어, 참여자는 모두 여학생이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공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모집 과정에서 미 참여자에 대한 부정적 결과피해 또는 참여자 대한 혜택이 교과목 성적연계와 무관함을 함께 공지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연구참여자들은 21~24세의 간호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모성간호학 실습 중에 병원분만과정은 2~4건(질식분만 1~4건, 제왕절개분만 0~2건), 조산원 분만은 1~2건을 관찰하였다. 향후에 희망하는 자신의 출산장소 및 분만방법으로는 조산원 분만을 9명이, 병원분만을 3명이 선호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 중 3명은 향후 조산사과정을 수료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진행과 참여자 인권보장을 위해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심의번호 제 MC13EISI0009).

3. 질문 개발

면담을 위한 질문은 연구의 목적과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18] 질문의 원칙을 숙고하여 공동연구자와 함께 연구문제를 명확히 하고, 초안을 작성, 검토한 후 시작 질문,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요 질문 및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시작 질문은 인사의 말과 근황에 대한 내용, 도입 질문은 조산원 실습 시기와 그 때의 기억을 확인하는 내용, 전환 질문은 조산원 실습 시의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무리 질문은 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빠진 의견이나 추가할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에서 사용된 주요 질문은 ‘조산원 분만에 참여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조산원에서 산부의 분만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고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조산원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및 ‘조산사의 역할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등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13년 2월 15부터 2월 28일까지 3개의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 일정

은 참여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가능한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였다. 면담은 외부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학과 세미나실 문의 입구에 연구 진행을 공지하였으며 참여자를 위한 음료와 다과를 준비하였다.

각 면담 시에는 연구자 3명이 참여하여 주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공동 연구자는 보조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 연구자는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제목과 연구의 구체적 목적을 참여자들에게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녹음될 것이며, 녹음 내용은 시건 장치가 있는 녹음기에 보관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후 참여자들에게 서면으로 연구동의서를 받고 녹음과 메모를 실시하였다.

각 그룹의 면담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이었으며 최소 1시간 20분에서 최대 1시간 40분가량 소요되었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참여자가 주제에 대해 유사한 배경과 동일한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정한 인원인[18] 1그룹에 4~5명의 소그룹 면담으로 구성하였으나 면담 일에 불참한 참여자가 발생하여 첫 번째 집단에는 5명, 두 번째 집단에는 3명, 세 번째 집단에는 4명으로 총 12명이 면담에 참가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짧은 시간에 많은 집중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참여자의 경험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된 토의방식으로 진행하므로[19] 이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면담은 연구목적과 연구참여자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여 단계적 질문을 실시하였다. 주 연구자 이외에 공동연구자는 면담 시 질문이나 연구에 영향을 미칠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과 면담 분위기에 대해 메모하였고, 모호한 진술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면담 직후에는 메모한 비언어적 행동과 면담분위기를 기록하였다. 기기의 오작동을 고려하여 면담 내용을 2개의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한 내용은 원본의 손상에 대비하여 복사본을 준비하여 작업하고 원본은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다. 면담의 분위기와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각 그룹의 면담이 끝나는 대로 전사를 실시하였다. 공동연구자 중 1인이 직접 반복하여 들으면서 내용을 옮겨 적었고 전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연구자들이 내용을 각각 검토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olaizzi [20]의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여 추상적 진술을 만든 후 의미를 재구성하여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19].

분석 자료는 포커스 그룹 면담과정 중에 이루어진 녹음의 필사본, 진행자와 공동연구자가 작성한 현장 노트 등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각 그룹마다 면담 후 필사하고 의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면서 반복 및 추가되는 의미들이 있는지를 더 이상의 새로운 의미의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였고,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1) 면담자료에서 참여자 경험의 의미를 얻기 위해 대상자와의 면담한 내용과 필사본을 반복하여 읽었다. 2) 반복하여 읽으면서 숙고과정을 거쳤고 이후 연구자간에 동의 및 상이한 표현과 의미들을 수차례 상호교환하면서 탐구하려는 조산원 분만참여 경험을 포괄하는 구와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였다. 3)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4) 의미 있는 진술과 새 진술로부터 좀 더 추상적인 연구자의 언어로 구성된 의미를 끌어내었다. 5)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와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하였다. 6) 이들을 조산원 분만 참여경험과 통합하여 최종적인 기술을 하였다.

6.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평가기준에 따라[21]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 분만 관련 임상 및 교육경험이 있으며, 질적 연구에 관해서는 대학원과정 중의 질적 연구방법에 관한 수업을 수강하였다. 연구와 논문심사 및 여러 차례의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질적 연구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현상학적 연구 관련 서적들을 숙독하였다. 자료의 사실적 가치 확보를 위해(credibility) 면담 시작 전 연구목적에 자세히 설명하였고,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면담시간을 여유있게 진행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풍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진술 그대로 필사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분석과 해석은 Colaizzi가 제시한 방법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선택하여 연구자의 진술로 재구성한 뒤 관련된 내용끼리 분류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한 후 주제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연구자의 편견이 분석에 반영되지 않도록 공동연구자들 간의 자료분석의 일치도를 확인하여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dependability). 면담을 하는 동안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의미를 확인하였다. 분석된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을 타당성있게 정리되고 서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출된 주제를 참여자 중 2인에게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재확인하는 과정(confirmability)을 거쳐서 자료, 분석 및 해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1. 분석 결과

참여자의 조산원 출산관찰 경험을 분석한 결과 264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인하였다. 진술한 내용에 대해 연구자들이 구성한 의미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 총 78개의 내용으로 분류하였고, 의미가 같은 내용들을 묶어서 31개의 하위주제로 유목화 하였다. 31개의 하위주제에서 1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5개의 주제모음으로 범주화 하였는데, ‘자연 분만의 본 모습을 봄’, ‘허용되는 출산’, ‘조산사의 역할 재발견’, ‘긍정적으로 변화된 출산인식’ 및 ‘극복해야 할 장벽’이었다(Table 1).

1) 주제모음 1: 자연분만의 본 모습을 봄

(주제 1) 기다려주는 분만

참여자는 이론적으로만 들던 분만기전을 직접 생생하게 관찰함으로써 분만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분만의 전 과정이 인위적인 시술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분만 후에도 탯줄 자르기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분만의 진행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출산은 여유있고 자연스러워서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저희는 아기 나오는 걸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배우잖아요. 아기가 내회전 그런 거, 그걸 제대로 본 거예요. 처음에는 어두우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아기 머리였던 거예요. 그게 놀랍고 괜히 보는 저희가 감격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수업할 때 보여주셨잖아요. 영상 그 때 애들이 엄청 소리지르고 막 못 볼 걸 보는 것처럼 그랬는데... 아기가 정말 편안하게 천천히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딱 나왔을 때는 저희가 더 감격해서 정말 신기하다고 놀랐어요.(참여자9)

아기가 스르르륵 나왔는데 바로 탯줄도 안자르고, 아

Table 1. Experienc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ed to Delivery at Midwifery Clinic

Theme cluster	Theme	Sub-theme	Formulating meaning	
Ultimate process of natural childbirth	Awaited childbirth	Waiting	Felt not forceful and waited until spontaneous expulsion	
		Natural	Kept parturient's composure Observed labor mechanism Not hurrying and delayed cord cutting Slipped out with amniotic fluid	No episiotomy Gave a sucking chance immediately Had consideration for the baby
	Confident heroine	Self confidence	Prepared for labor and childbirth Touching a baby	Played a heroine Had a courage Feeling the strength
	Respected baby	Communication	Respectful communication	Communicated to fetus
		Interaction	Gave name to the baby The baby didn't cry and looks like Protected	Recognition of individuality for fetus comfortable
Allowed birth	Comfortable environment	Physical environment	Felt private space Warm and dim place	Supplied audio music and zim ball
		Atmosphere	Felt like home, cute, warm and cozy place Felt safety and familyish	Not unfamiliar, calm and peaceful space
	Permitted free activities	Midwife's encouragement	Encouraged mom with supportive measure	Gave reassure
		Free posture	Observed not limited and unconstrained activities Played zim-ball	Various client's position ie, lie, prone, and walk
	Join in birth by family	Husband's cooperation	Husband did stand by and pray for wife Maintained good relationship, support, conversion, Experience together, happy experience	Husband gave positive aid to labor Assisted change position Ever lasting memory
		Identity as father	Put a baby in a kangaroo bag Cut the cord after delivery	Wrote a letter to baby
		Prepared family	Family labor Siblings participated and prepared a party	Talked with fetus
		Love	Made the love together	Brotherhood
		Bond have fellowship	Feeling of solidarity Watching the labor together	
		Family festival	Wait to baby	Cook for mom and baby
Spot of midwife's role	Professionalist	Reliable	Did role same as natural oxytocin Led the labor and supported process Skilled	Alleviating pain Gave an education and counseling
		Coping ability	An expert to cope with emergency	
	Smart mom	Like mom	Mother role as a tower of strength Put full confidence in mother	Like wise mom
Positively changed perception	Change of recognition	Empathy	Spent time during keen period	Empathy
		Image change	Changed image of labor from negative to joyful event Was impressed	Beautiful event
	Dula Worthwhile pain	Helpful	1:1 assisted mother, supported leg	Found worth rewarding for helping
		Satisfaction	Although pain mom smiles	Felt satisfaction
		Romance	Was loving	Looked relaxed and calm
Barriers	Conflict	Blessed	Sharing the pain with family	Looked happy
	Concern	Inconsiderate	Marriage relationship Husband slept during wife's labor	Needs to make compromises with husband
		Unclean	In the fear of poor and unclean surroundings	
		Outdated	Outdated feel	Concerned for baby's safety
		Uneducated and poor	Place where uneducated and poor people use	
		No specialty	Who has no specialty	Concerns about the emergency situation

기 안고 있는 모습이 되게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가 나오는데 그걸 억지로 나오게 하지 않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나오는 것을 최대한 배려해주는 것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참여자7)

투약, 일상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회음절개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참여자11)

(주제 2) 산부가 주인공인 분만

참여자는 산부가 분만에 대하여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고, 조산원 분만 선택은 대단히 용기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산부는 조산원을 단지 분만뿐 아니라 산후관리까지도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관찰하였다. 산부는 물론 가족 모두가 정보와 교육으로서 사전준비가 되어 있으며, 분만과정에서 조산사와 가족은 모두 산부에게 집중할 뿐 아니라 조산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포함한 출산계획서 등을 보면서 산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분만 중에도 산부의 기분, 느낌 등을 확인하는 등 배려와 인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분만 중에 아기머리를 만져보는 모습에서 산부가 분만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자유로운 분만자세가 허용됨으로서 분만이라는 이벤트 속에서 산부는 아기와 함께 공히 주인공이 되어있음을 관찰하였다.

조산원에서 분만하는 산모들은 표정에서부터 자신감이 있었고 확실히 잘 참는거 같고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참여자10)

서로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주변사람 신경 안쓰고, 자유로운 자세로 공위에 엮드려 있고...(참여자1)

제 산모는.... 그래서 아기가 양수랑 같이 쑥 미끄러져서 나와 가지고 직접 앞으로 받으셔서 직접 다 만져보고 하셨어요(참여자12)

저 같으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큰 거 같아요. 아이도 정말 생명체처럼 잘 대해주고 산모한테도 그 과정동안 ‘계속 어때요’ 기분 물어보고, 자세도 괜찮냐 물어보고 그렇게 계속 해주니까 빨리빨리 안 낳고 산모가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출산할 수 있어서...(참여자4)

(주제 3) 존중받는 아기

참여자는 출산 전에 태아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며 태아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다. 아기를 배려하여 자궁과 같이

어둡고 은은한 환경을 유지하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나오게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병원분만과정과 대비시키면서 관찰하였다. 태어난 아기는 바로 엄마 품에 자연스럽게 두는데 울지도 않았고 눈도 뜨지 않은 채 젖을 무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기의 본능이 보호되고 있고, 자연스런 모아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진짜 아기가 안 울더라구요. 되게 신기했어요. 제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참여자12)

조산사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해서 그 아기가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참여자4)

조산사 선생님이랑 얘기했었을 때 이런저런 사례도 있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태아가 둔위일 때, 병원에서는 바로 제왕절개하자 이러는데 거기서는, 조산사 선생님이 계속 아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다린대요. 그러면 아기가 자기가 처한 환경을 알고 그래서 움직인대요. 서서히 그게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분만은 자연적인 섭리로 인해서 아기가 스스로 자리를 잡아서 엄마가 출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빨리 하려고 하는 거지 아기를 위해서나 산모를 위해서는 그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아기한테는 배려인거 같아요(참여자9)

2) 주제모음 2: 허용되는 출산

(주제 1) 분만하기 편안한 환경

참여자는 조산원에서는 병원과는 다르게 물리적으로 따뜻하고 은은하며 개인적 비밀이 보장되는 사적 공간으로서뿐 아니라 내 집 같은 편안함과 조용하고, 안전하며, 친숙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드는 환경에서 출산이 이루어짐을 관찰하였다.

병원에서는 산모가 NST (non stress test, 태동검사)때문에 하루종일 침대에 있어야 하는데 조산원에서는 산모와 가족의 입장에서 낯설지 않고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배고프면 먹고 화장실가고 싶으면 가고...(참여자7)

그리고 그때 하고나서 병원에 실습을 나가니까 그때 조산원의 분위기가 얼마나 태아와 산모한테 좋았었는지 확실하게 비교를 하면서 느꼈거든요(참여자2)

(주제 2) 일상활동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분만

활동이 통제되지 않고 자유로이 눕고, 걷고, 짐볼을 이용하여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에서 분만 직전까지도 평상시와 같은 일상활동이 허용되는 산부의 자유로움을 느꼈다.

원래 병원은 다 똑같은 자세로 낳잖아요. 그런데 조산원에서는 산모가 편한 자세로 참고 진통이 올 때도 의자나 짐볼에 앉아서 자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참여자8)

제 산모는 누워있는 자세가 아니라 산모가 편한 자세로 하니까 뭐라고 하죠? 그 엎드린자세? 말자세, 아기들 말 태워주는 자세로 낳으셨어요(참여자12)

제 산모는..... 눕고 싶으면 눕고, 걷고 싶으면 걷고, 물도 마실 수 있고...(참여자6)

(주제 3) 배우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도움이 허용됨

배우자가 힘든 과정에서 함께 하면서 말로써 뿐 아니라 등을 지지해 주고 기도하고,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부인으로서 힘든 과정에 배우자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다고 보여졌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부인의 힘든 경험을 직접 보게 됨으로서 분만 후에도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부부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고, 평생 기억되는 행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남편은 아빠로서 아기의 태명을 지어 불러주고 편지를 써서 읽어주면서 아기와 상호 교류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출산 후에도 캥거루와 같이 품어주는 모습을 통해 아기는 남편과 산모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축복 속에서 태어난다고 느꼈다.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신나는 새 가족 맞이의 시간이 되며, 첫아이의 참여로 형제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고 아빠로서의 새로운 역할도 드러나는 분만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아빠가 들어와서 땀줄만 꿸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엄마 배위에 아기를 올렸다가 아빠 가슴에 올려드렸거든요. 아빠 캥거루 처럼요. 그것도 좋았던거 같아요. 아기는 그 아빠랑 엄마랑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분만에 비해서 훨씬 아빠가 참여하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참여자5)

제가 본 남편 분은 다음날에 아기 태어날 것을 대비해서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겠다고 케익도 같이 사들고 오고 동생 태어날 것 축하해준다고 첫아이도 알고 있더라구요(참여자11)

제가 좀 더 조산원분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첫째가

있을 때 동생이 태어나면 병원에서는 너는 아직 어리니까 집에 가 있어라 하고 분만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조산원분만은 큰아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분만에 참여시킴으로서 동생에 대한 애정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어떻게 출산되는지 다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릴 때부터 출생에 대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12)

조산원 분만은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만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산모가 진통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걸 지켜보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지지해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산모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태아도 처음 나오는 순간부터 지켜보니까 그거를 평생 기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11)

3) 주제모음 3: 조산사의 역할 재발견

(주제 1) 촉진제를 대신하는 조산사

참여자 3은 조산사가 아기가 언제 나올 것인지 알고 있는 듯이 산부와 아기를 격려하며 마사지, 음악이나 짐볼과 같은 것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산부와 가족에게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 조력자, 모아 연결자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자로서 출산전문가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산부와 아기가 협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적절할 때 맞춰 산부가 취할 수 있게 조치해 줌으로서 조산사의 역할을 옥시토신의 효능에 대비시켰다.

조산사는 조산원의 옥시토신, 옥시토신 같아요. 조산사 선생님의 역할로 인해서 그 아기가 좀 더 편안하고 시간도 더 단축될 수 있고 호흡방법도 알려줘서 산모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유도시켜 주는게 맞는거 같아요(웃음)(참여자1)

사실 조산사가 단순히 얘기만 받는 게 아니라 간호사와 조산사로 분리가 되어있고 면허증도 따로 있는 이유가 조산사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 같아요. 아기가 나왔을 때 뭐가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조산사는 그거를 알아내고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병원에 보낼 수 있는 대처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거 하는거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고위험산모가 아니라 정상산모라면 그냥 해도 되겠다.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조산사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5)

(주제 2) 친정엄마 같은 믿음의 지지자

출산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산모와 아기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며, 가장 예민한 시기를 함께 보내주므로 조산사의 역할을 똑똑한 친정엄마의 역할과 같다고 인식하였다.

산모 입장에서 조산사 선생님은 똑똑한 친정엄마 같아요. 왜냐면 지식적인 것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산모가 힘든 것도 헤아려줘야 하고 엄마처럼 공감도 해주고 보살펴주고 진통도 감소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모든 면에서 해야 하니까요”(참여자3)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 임신하고 출산을 하기까지 궁금한 것도 많고 가장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 예민한 시기를 같이 보내주신 분이잖아요(참여자9)

전체 가족이나 아기도 믿고 있는거 같아요, 그런 든든한 좀 이렇게 더 많이 병원 간호사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게 많은거 같아요(참여자10)

4) 주제모음 4: 긍정적으로 변화된 출산인식

(주제 1) 조산원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참여자는 출산과정을 지켜보면서 감동과 생명의 경이감을 느끼고, 병원분만과 비교하면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조산원 실습을 통해 미래에 있을 자신의 출산 장소로 조산원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가정 출산이란게 사실 이게 TV에서 봤던 출산장면들 있잖아요. 끈 부여잡고 소리지르고 그런 모습이랑 병원출산만 봤기 때문에 솔직히 책을 읽었지만은 병원분위기가 그렇게 나쁜가라는 비교기준이 없으니까요 이 아이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기고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자연적인 과정이고 감동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행위였구나. 병원에서는 몰랐는데 딱 조산원에서 가니까 너무 비교가 되면서 확 와 닿는거예요(참여자5)

출산 관련 영상볼 때 다른 친구들이 엄청 소리지르고 막 못 볼 걸 보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때 본 것처럼 징그럽다 그게 아니라 조산원 분만 자체를 옆에서 관찰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출산이라고 느꼈거든요(참여자9)

조산원 실습을 하는게 되게 좋은거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경험 못해본게 아쉬울 정도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니까 저도 몸이 허락한다면 몸에 위험이 없다면 조산원

에서 낳고 싶다고 생각했고, 생각자체가 많이 변하게 된 거 같아요(참여자10)

(주제 2) 학생 둘라로서 느끼는 보람

미리 준비된 산모와 가족으로부터 분만 참여를 거부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산모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학생 둘라로서의 역할에 보람을 나타내었다.

자신이 안정이 되니까 상대방을 더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학생이 다가가기 더 쉬운거 같아요(참여자6)

저희가 많이 도와 드렸거든요. 다리도 올려드리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시다가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그냥 도와 드렸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너무 감사해하시는 거예요. 엄마랑 남편분이랑 계속 있는데도 가란 말도 안하시고....(참여자10)

(주제 3) 가치있는 고통

분만의 진통은 있으나 부부가 같이 편안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은 기분 좋은 고통으로서 가치있게 인식되었다. 기다려주는 자연스런 분만과정의 진통 시에도 가족과 같이하기 때문에 진통을 편안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였다.

조산원 분만은 가족들이 같이 하니까 힘들어도 옆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프지만 아픈 만큼의 보람을 더 느낄 거 같았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진통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참여자9)

제가 봤을 때 약간 진통이 있으셨어요. 계속 그냥 분만 직전이니까... 있는데도 표정이나 행동을 봤을 때 되게 여유롭게 느껴졌어요(참여자12)

엄마가 남편분이랑 같이 아기 안는 것을 봤는데, 아기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기가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했어요. 그 가정에서 사랑 주는 엄마도 정말 좋아보였어요(참여자10)

출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체가 고통이라기보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과정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8)

5) 주제모음 5: 극복해야 할 장벽

(주제 1) 배우자 참여를 이끌어 내야할 필요성을 느낌

조산원 분만과정에서는 배우자도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데

준비과정이 미흡하면 조산원 분만 선택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분만과정의 어느 정도까지 참여해야 하는지 산모와 배우자가 사전에 타협점을 찾아서 산모의 섭섭함이나 너무 세밀한 것까지 같이하는 배우자의 당황감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이거나 산모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배우자를 관찰하면서 지지적이지 못한 배우자는 분만 중의 산모를 더욱 힘들게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피곤하다고 자고...(참여자7)

제가 본 가족은 무뚝뚝한가 봐요. 편지를 써오셨는데, ‘아버님이 읽어주세요’ 했는데 못 읽겠다고, 다 나가고 가족만 있을 때 하겠다고 하니깐, 산모분이 그냥 내가 읽겠다고 하고 본인이 읽으셨어요(참여자12)

옆방에서 출산한 부부는 사이가 안좋아서 아기 낳는데 남편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참여자1)

(주제 2) 응급상황에 대한 우려감

참여자 3은 조산원 실습 이전에는 모든 기구의 멸균, 소독과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고, 분만도중의 응급상황 시 위험부담이 있다고도 생각하였다. 이에 비해 일반인들은 안전성 측면에서 조산사가 아직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과거의 염려되는 ‘산파할머니’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방에서 아이를 낳는 과정에 참여해 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산원을 처치에 한계가 있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 가는 낙후된 곳으로도 인식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우려감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조산원은 낙후되었는데, 어떻게 방에서 아이를 낳지’ 하시더라구요(참여자9)

병원에는 중앙공급실 통해 모든 기구를 멸균, 소독하여서 사용하는데 조산원은 어떤지., 바닥에 흘린 피 등을 어떻게 치우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지 궁금했고.. (참여자 6)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게 좀 단점이 ..(참여자10)

2. 조산원 분만참여경험 기술

참여자인 간호대학생은 생생한 내회전을 포함하여 분만의

전 과정을 관찰하면서, 분만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진행되고 있으며 산부는 분만에 대한 자신감에 차 있다고 생각했다. 산부중심으로 진행되는 분만, 억지로 만출을 재촉받지 않는 아기의 모습에서 산부와 아기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분만환경을 포함해 산부, 배우자 및 가족에게는 평상시의 활동이 대부분 자유스럽게 허용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조산사는 분만을 조절할 수 있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모에게는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조산원 분만은 배우자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응급상황 시에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출산과정에 참여하면서 산모와 가족은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어서 학생실습을 거부하지 않으므로 참여자들은 학생 둘라로서의 보람도 느꼈다. 분만참여 경험을 통해 출산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조산원은 향후에 참여자 스스로도 분만하고 싶은 곳으로서 인식이 변화하였고, 출산과정을 지켜보면서 감동과 경이감으로 충만한 유익한 실습으로 회고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조산원 분만 참여가 어려운 현실에서 조산원 분만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서 간호대학생에게 진정한 자연분만의 의미는 무엇이고 자연분만 시 조산사의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12명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참여자는 분만의 주체자인 산모의 분만경험과는 다르게 조산원 분만을 병원분만과 부분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인지하였다. 산모가 주체자인 선행연구에서는 출산에 대해 조산원 분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산부가 주도하는 분만을 해냈다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등이 부각되는 반면²⁾, 본 연구의 참여자는 산모와 함께 태어만출 전후의 아기중심으로 진행되는 분만의 모습을 통해 자연분만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폭넓게 인식하였다. 또한, 조산사를 출산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촉진제 효능의 역할자로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출산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등 산모보다는 자연주의 출산을 더욱 포괄적인 의미와 연관시키고 있었다.

주제모음 1은 ‘자연분만의 본 모습을 봄’이었다. 참여자는 자연스럽게 기다려주는 분만과정을 관찰하면서 출산을 그리 어렵지 않은 일로 인식하였다. 산부는 자신감에 차있었고 아

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졌다. 만출 후에도 울지 않고 편안한 모습의 아기를 관찰하면서 참여자는 조산원에서의 분만을 자연 분만의 진정한 본 모습으로 인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자연주의 출산은 자연적인 치유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서 조산사에 의한 가정 분만이 산모 자신은 물론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조절함을 경험하였다[22]. 조산원 분만 산모는 조산사의 돌봄에 만족하여 진통과 출산조절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냄으로서 분만 경험에 만족한다고 해설[23,24] 본 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

산모 자신의 출산경험에 대한 선행연구[2]에서처럼 참여자가 관찰한 산모의 자신감은 산전관리를 통한 산모와 아기의 건강, 정상 생리 과정으로서의 출산을 신뢰함으로써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 특별한 의미와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산부의 의지보다는 의료진에게 의존하며, 다른 산부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지쳐있는 병원 분만의 모습과 대비시켰을 때 조산원에서 분만하는 산모의 자신감은 더욱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 조산사의 지지로 가정 분만한 산모의 경우 출산일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분 좋고 능률적인 날이었으며,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었다는 경험[25]과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율적으로 출산장소와 출산방법을 선택하여 출산을 스스로 기억에 남는 축제로 삼고자 하는 여성들의 경향을[2] 고려해보면 산모들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조산원 분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분만과정에서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통제능력이 저하된다고 하고 있어[26], 자신의 생각과 자기주장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산모들의 출산장소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산모뿐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간호대학생의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참여자는 분만하는 동안 서두르지 않고 자궁과 같이 아늑한 환경 속에서 태아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아기마중 같다고 느꼈다. 아기가 기다려지는 가운데 미끄러지듯이 분만되고 편안한 모습으로 엄마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가슴에 올려지며 탯줄을 서서히 자르는 상황에서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신생아에 대한 배려는 르브아이에 분만에서도 볼 수 있다[9].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엄마 품에서 눈도 뜨지 않은 채 젖을 무는 아기의 모습을 통해 기다려주는 조산원의 분만진행과정은 참여자에게 향후 모아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만출 직후부터 가장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주제모음에서는 기다려주었을 때 비로소 관찰할 수 있는 아기중심의 모습과 의미들이 산모보다는 참여자에게 더욱 부각되면서 진정한 자연 분만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 면담내용에서와 같이 둔위인 경우에도 자연 질 분만을 할 수 있다는 인지는 난산으로 정의해서 질식분만의 금기증으로 단순 분류해 있는 비정상체위들의 정상 분만 가능성을 재조명할 수 있고, 이는 곧 제왕절개 분만을 감소를 위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산모의 분만경험과는 다르게 조산원 분만을 의료행위가 개입되는 병원분만과정과 대비시켰는데, 아기의 만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음절개와 흡인기 사용이 행해지며, 태어나자마자 우는 아기의 모습에서 참여자는 의료적 처치가 배제된 자연주의 출산 과정을 비교하였다. 또한, 조산원에서 의 아기는 울지 않고도 편안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분만에서는 분만직후 아기의 울음소리와 생명력과는 비례한다는 고정관념으로 만출 직후 구강 흡인을 하는 등의 일상적인 간호중재에 대해서도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주제모음 2는 “허용되는 출산”이었다. 참여자는 물리적으로 따뜻하고 개인적 비밀이 보장되는 사적 공간, 내 집같은 친숙한 분위기 및 모든 활동이 허용되어지는 산부를 관찰하면서 병원과는 차별되는 환경으로 인지하였다. 또한 힘든 출산과정에서 배우자가 함께 함으로서 산부가 심신이 지지될 뿐 아니라 태어나는 아기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첫 아이의 참여는 형제간의 유대감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였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편안함을 느끼며, 배우자와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의미들은 산모의 경험[2]과 본 참여자의 경험이 유사하였다. 출산 시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지는 산모에게 출산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고[3],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의 지지는 출산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7]. 참여자에게는 분만 전 배우자의 참여와 출산과정에서의 가족참여는 산모의 자신감, 배우자와 아빠로서의 정체감 및 가족 간 유대감 증진의 기회로 인식하게 된다.

출산과정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경험한 여성은 가족 간의 유대가 증진되며, 분만 후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높으나[4,5], 분만과정에 대한 두려움 등의 부정적 경험은 추후 분만에서도 자신이 분만을 잘 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하며 공포감, 외로움을 느끼고 의료인의 도움도 신뢰하지 않는다[6]. 이는 가족 간의 사랑이 충분하고, 배우자와 가족의

결속력이 있을 때 산부에게 자연분만을 유도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의 결정체로서 발휘될 수 있다고 인식된다.

주제모음 3은 ‘조산사 역할의 재발견’이었다. 조산사를 전문인으로서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촉진제로서의 역할과 대비시키며, 친정엄마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무조건적 의지와 신뢰자가 되어있는 조산사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조산사에 대한 믿음은 산모의 경험과도 유사하지만²⁾ 참여자는 촉진제 효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로서 조산사의 역할을 발견한 점이 산모 경험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Gibbins와 Thomson^[23]의 연구에서와 같이 조산사가 최대한 산모와 아기가 주도적으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는 역할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 산모보다는 참여자가 조산사 역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점은 출산전문가로서 분만개조자인 조산사의 확대된 역할이 홍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모음 4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출산인식”이었다. 출산 과정은 감동과 생명의 경이감을 느끼면서 출산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산고라는 보편적인 생각으로부터 분만은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정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하였고, 조산원 실습을 통해서 조산원에서 출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감있는 산부의 모습과 분만의 진통은 있으나 부부가 같이 편안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은 기분 좋은 고통으로서 보람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선행연구^[9]와도 일치하는데, 간호대학생들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조산원에서의 분만실습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산모와 가족으로부터 분만 참여를 거부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산모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학생 둘라로서의 역할에도 보람을 나타내었다. 이는 관찰자 대 피 관찰자 입장에서가 아닌 일대 일의 지지자로서 산모에게 긍정적 분만 경험이 되도록 돕는 간호중재에 학생 둘라로서 참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신체적, 정서적 및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일대일 분만지지간호가 산부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분만 경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었다^[28]. 또한, 존스 홉킨스 간호대학에서는 1998년부터 학부 학생 대상의 선택과정으로 둘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둘라로서 출산에 대한 주도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만하는 산모의 선택을 지지하고 옹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29]. 이런 결과들은 일대일 분만지지 간호가 제왕절개분만, 유도분만, 분만 중 진통제 사용 및 기타 분만 합병증을 감소시키는데도 효

과적임을 지적하고 있어서, 산부들이 일대 일 지지로서 자연출산을 지향하는 조산원 분만을 선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주제모음 5는 “극복해야 하는 장애”였다. 조산원 분만은 배우자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만 과정에서 요구되는 배우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참여자는 비협조적이거나 기대에 어긋나는 배우자들은 오히려 산부를 더욱 힘들게 하며, 배우자와의 갈등은 조산원 분만을 결정할 때 사전에 배우자의 협조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범주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 등이 출산의 전 과정에서 산부에게 더욱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한다는 연구^[9, 30]들과도 같은 의미로서 지지된다. 그러므로 배우자 준비교육 내용에 분만 단계별로 배우자의 참여 부분 등을 더욱 세밀하게 포함하여서 배우자를 지식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하게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참여자는 조산원은 비위생적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참여자에게 자신도 조산원 분만은 응급 상황시의 불안감이 내재해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은 조산사를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과거의 산파할머니로서, 조산원을 무지, 가난 및 낙후된 시설 등과도 연상시키고 있음을 상기하였다. 이는 조산원 및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많은 정보나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조산원의 방바닥에서 그대로 아이를 낳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조산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시대착오적인 우려감이었다고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많은 예비의료인들의 자연주의 출산현장 참여기회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참여자인 간호대학생은 분만 과정에 산모가 느끼는 경험은 유사하였지만, 집중적으로 아기 중심의 입장에서 조명하면서 자연분만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였고, 조산사의 역할이나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연관시키는 등 더욱 포괄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었다. 참여자의 조산원 분만참여 경험은 진정한 자연주의 출산의 모습을 통해서, 모아애착, 산전, 산후관리, 분만진통 감소방안, 모유수유 및 제왕절개 분만감소 등 출산 관련 간호이슈들이 자연스럽게 기다려주는 자연주의 출산을 통해 많은 부분 해결되는 시작점으로서의 실마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참여자에게 진정한 자연분만의 의미와 자연 분만

시 조산사의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산모들의 출산장소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을 돕고, 자연주의 출산을 고려하는 산모들의 요구에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조산원 분만참여 학생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면담자료는 264개 의미 있는 진술문과 78개의 비슷한 내용들로 분류하였고, 31개의 하위 주제와 13개의 주제로부터 '자연 분만의 본 모습을 봄', '허용되는 출산', '조산사의 역할 재발견', '긍정적으로 변화된 출산인식' 및 '극복해야 할 장벽' 등의 5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참여자는 산부보다는 태아만출 전후 아기 중심의 입장을 더욱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진정한 자연분만의 본 모습을 관찰하였고, 조산사를 출산과 관련해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유롭고 자연스러우며, 존중받고 있는 산모와 아기를 관찰하면서 자연주의 출산 및 조산원 분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로서 질적인 분만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인위적 의료과정이 없이 재조명된 진정한 자연주의 출산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이 이론과 실습내용에 포함되어지고 분만간호 실무에 적용되어져야 한다. 향후에 산부는 물론, 남편, 가족 및 조산사 관점에서의 반복연구를 통해 다각적 관점에서 자연주의 출산의 포괄적이며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이 결과는 참여자인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통해 조명되어진 전체적인 자연주의 출산의 본 모습이 교육내용과 실무 및 연구 등에서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Davis E, Pascali-Bonaro D. Orgasmic birth: Your guide to a safe, satisfying, and pleasurable birth experience. NY: Rodale Books; 2010.
2. Lee SH. Women's experiences on spontaneous delivery with midwives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2.
3. McCourt C. How midwives should organise to provide intrapartum care. In: Walsh D, Downes S, editors. Essential midwifery practice: Intrapartum care. Oxford: Wiley-Blackwell; 2010. p. 253-274.
4. Oh HE, Sim GS, Kim JS. The effects of prenatal education on primipara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2;8(2):268-277.
5. Callister LC. Making meaning: Women's birth narrative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2004;33(4):508-518.
6. Nilsson C, Bondas T, Lundgren I. Previous birth experience in women with intense fear childbirth.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2010;39:298-309.
7. Encyclopedia Britannica. Natural childbirth [Internet].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cite 2015 March 12]. Available from: <http://global.britannica.com/EBchecked/topic/406123/natural-childbirth>
8. Park MR. Mother's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labor pain, newborn's pain and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with Leboyer method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10.
9. Kim MJ.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s of attending Leboyer birth.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2;18(1):62-73.
10. Kang ML, Kim SK, Bang JM, An JE, Yun Y, Lee SH, et al. The comparison of perception of birth experience to women who had a hospital delivery and those who a maternity hospital delivery. Journal of Ewha Nursing. 2005;39:119-141.
11. O'Brien B, Chalmers B, Fell D, Heaman M, Darling EK, Herbert P. The experience of pregnancy and birth with midwives: Results from the Canadian maternity experiences survey. Birth. 2011;38(3):207-215.
12. Janssen PA, Saxell L, Page LA, Klein MC, Liston RM, Lee SK. Outcomes of planned home birth with registered midwife versus planned hospital birth with midwife or physician.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2009;181(6-7):377-383.
13. Yeo JH. A nursing college women's meaning of labor and delivery: Phenomenological meth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1;7(2): 203-211.
14.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nual report of normal delivery statistics [Internet]. Seoul: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08 [cite 2013 November 12].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8207&vw_cd=&list_id=&scrId=&seqNo=&lang_mc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15. Kim JH. Experiences of self-directed birth: The birth of new self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3.
16. Yeo JH. Attitudinal type on delivery for college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1;31(6):1088-1097.
17. Jung OB, Park HJ. Experience on delivery room practice of mal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1;17(1):64-76.
18. Kim SJ, Kim HJ, Lee KJ, Lee SO. Focus group kit. Seoul: Hyunmoonsa; 2000.
19. Shin KL, Cho MO, Yang JH.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4.
20. Colaizzi P.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 King M, editor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 Press; 1978.
21.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1985.
 22. Morison S, Percival P, Hauck Y, McMurray A. Birthing at home: The resolution of expectations. *Midwifery*. 1999;15(1):32-39.
 23. Gibbins J, Thomson AM. Women's expectations and experiences of childbirth. *Midwifery*. 2001;17(4):302-313.
 24. Hildingsson I, Radestad I, Lindgren H. Birth preferences that deviate from the norm in Sweden: Planned home birth versus planned cesarean section. *Birth*. 2010;37(4):288-295.
 25. Scharback AW. Transitions: The birth of flora Arden. *The Journal of Perinatal Education*. 2012;21(2):62-66.
 26. Fraser DM, Hughes AJ. Perceptions of motherhood: The effect of experience and knowledge on midwifery students. *Midwifery*. 2009;25(3):307-316.
 27. Eom SY, Kim ES, Kim HJ, Bang YO, Chun NM. Effects of one session spouse-support enhancement childbirth education on childbirth self-efficacy and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in women and their husband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012;42(4):599-607.
 28. Hur MH. Effects of one-to-one labor support on labor pain, labor stress response, childbirth experience and neonatal status for primipar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1;7(2):188-202.
 29. Jordan ET, van Zandt SE, Wright E. Doula care: Nursing students gain additional skills to define their professional practic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08;24(2):118-121.
 30. Gungor I, Beji NK. Effects of fathers' attendance to labor and delivery on the experience of childbirth in Turke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07;29(2):213-231.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Perceptions of Mother's childbirth who delivering with midwife more positive than those hospital delivery.

■ **What this paper adds?**

Attending delivery at midwifery clinic were helpful for nursing students to have positive impression about natural childbirth. Students also expressed value and concern about delivery at midwifery clinic. This reflection does help students learn how midwives' works were different from routine labor and delivery practice at hospital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 experienc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t midwifery clinic in clinical nursing practicum may be useful for understanding of experiences of women, their spouse, and their family.